“일자리 해법 찾아라” 머리 싸맨 2野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정책콘서트…김종인 “재정확보위해 증세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국회에서 일자리 정책 콘서트와 노동정책 관련 워크숍을 각각 개최, 정책 경쟁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더민주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일자리 정책 콘서트’를 열고 일자리 부문 등에서의 지자체 정책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실업대책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성장 동력은 식어버린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이어 “중앙집권적 성장·고용정책에서 탈피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 고양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국민의당 20대 총선 당선자 30여명도 이날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과외수업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 독과점 강화 및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개혁 5법 등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수용 검토 필요성 및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국민의당 워크숍…안철수 “지역·세대 전 분야 격차 해소”

안철수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2016년 시대과제는 2가지, 바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로 물고 물리며 한 분야의 심각한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 모습”이라며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이고 국회가 결국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을 제한하기보다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차별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어렵고 복잡한 노동 문제를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20대 국회에서 노사정과 재벌, 비정규직을 포함한 최소한의 테이블을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기 국회의장 내가 적임자”

더민주 후보들 5인 5색 불꽃 경쟁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박병석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5명의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문희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 등을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쭉 계승해온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직을 끝으로 ‘명예로운 퇴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세균 의원은 ‘국민의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측면 지원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중도 무계파 역할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무계파라는 점 때문에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과 소통하는데도 적임자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충청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 자신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선수도, 계파도, 지역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정한 주역이라는 점이 내세우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제도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점차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가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잠재적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및 친문 진영의 선택과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광주시당 조직 정비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4·13 총선 승리 여세를 몰아 조직 정비와 당직 인선을 추진한다.

24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주요 기간조직인 상임고문과 고문단, 부위원장단, 상설위원장을 구성하고 시당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조만간 당연직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상설위원장과 운영위원 호선을 의결하고, 향후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 사무처 구성과 상근직 당직자 인선을 한다.

아울러 당원 배가운동과 당사 이전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주재로 광주지역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원 배가, 당직 추천 및 인선 방안, 당비납부시스템 구축 등 시당 운영과 조직 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외연 확대와 당세확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기업 진상 조사”

국민의당 “이게 노사 자율이냐”…야권, 정부 강제 도입 맹비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함께 날을 세우며 대정부 연합 공세를 펼쳤다.

양 당은 지난 20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불법, 탈법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쪽에선 강요하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이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돼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을 불러 강압하고 이사회 의결로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게 노사 자율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에도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23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9곳 가운데 6곳으로 늘어났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이들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개 기관은 이번 주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지도부 공백 사태 장기화

친박 “외부 영입”…비박 “비대위 재추인” 공방

새누리당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혁신형 비상대책위가 친박 진영의 실력 행사로 무산되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친박계에서는 차기 당 지도부가 정통성을 갖고 당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를 위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대 준비를 포함해 안정적 체제 변환을 맡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비박계는 여전히 기존 비대위의 재추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를 통해 집단지도체제의 개편이나 4·13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쇄신 방안 등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심점이 없는 비박계는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6. 5. 30(월) ~ 6. 8(수)
② 전 형 일 : 2016. 6. 10(금)
③ 합격자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남영건설 주식회사M&A 공고

1. 개 요
① 회사 개요 :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회생회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
② M&A 방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③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

2. M&A 진행 일정
① 인수의향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6월 3일(금) 17:00까지 (대한민국 서울시간)
– 접수장소 : 대주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화정동 783-20) 대광빌딩 6층]
– 제출서류 : 인수의향서 및 관련 부속서류
② 예비실사를 위한 자료 제공
– 인수의향서 제출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는 회사소개자료(IM) 등의 자료 제공과 Q&A 등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임.
③ 예상 업무 진행 절차
– 인수의향서 접수(정보이용료 납부 포함) 및 사전심사 → 예비실사자료 제공 →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정밀실사 수행 → 투자계약 체결

3. 기타 사항
1. 인수의향서 작성 안내문 및 관련 부속서류 양식은 매각주간사에 요청하여 수령함.
2.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수의향서 접수 후 개별통보 예정임.
3. 인수의향서, 입찰서류 등 본건 M&A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반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5. 본 M&A 진행 절차, 인수의향서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적격투자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주간사의 고유권한으로, 잠재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제12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회생회사 M&A 거래에서의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 관행 등에 따름. 본 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 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짐.

본 M&A 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매각주간사인 대주회계법인(Tel: 010-4629-3235) 앞으로 문의바라기 바랍니다.

남영건설 주식회사 M&A 매각주간사
대주회계법인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 · 금융사 · 임용고시 · 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